

“하고 싶은 대로 해” 기득권에 대한 ‘도전’

글 김태환 객원기자(kimthin@techm.kr)

“대체 이런 것도 책이라고 냈나?” 싶은 것만 짚는 출판사를 차리고 싶다. 이름은 ‘나무아미안해’로 정했다.”

지난해 김미체 나무아미안해 대표가 트위터에 올린 글의 일부다. 나무에게 미안할 정도로 질이 낮은 책들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긴 메시지였다. 하지만 출판물들의 성과는 예상외로 놀라웠다. 투자 목표금액의 800%를 달성하고,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김 대표는 동양철학을 주로 다루는 출판사 ‘문사철’에서 출판기획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출판물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해 도전을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언론에서도 지면으로 나오는 기사와 단순히 인터넷 상으로만 노출되는 기사의 무게감이 다르다. 이는 출판물이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이라며 “결국 출판된 정식 간행물이라면 기득권이라 볼 수 있는데, 이 권위를 허물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출판물을 아마추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출판사 이름부터 ‘나무아미안해’로 정했다. 책은 나무를 베어 만든 종이로 제작되는데, 그 나무에게 미안할 정도로 질이 낮은 내용의 출판물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그는 평소에도 자주 방문했던 ‘디시인사이드(DCinside)’에서 작가들을 섭외했다. 디시 카툰 짝은 이말년, 주호민, 마사토끼 등 유명 웹툰작가가 처음 작품을 올리기도 한 국내 최대 만화 커뮤니티다. 꾸준히 연재하는 작가들 중 혼밥작가로 유명한 ‘카광’, 예상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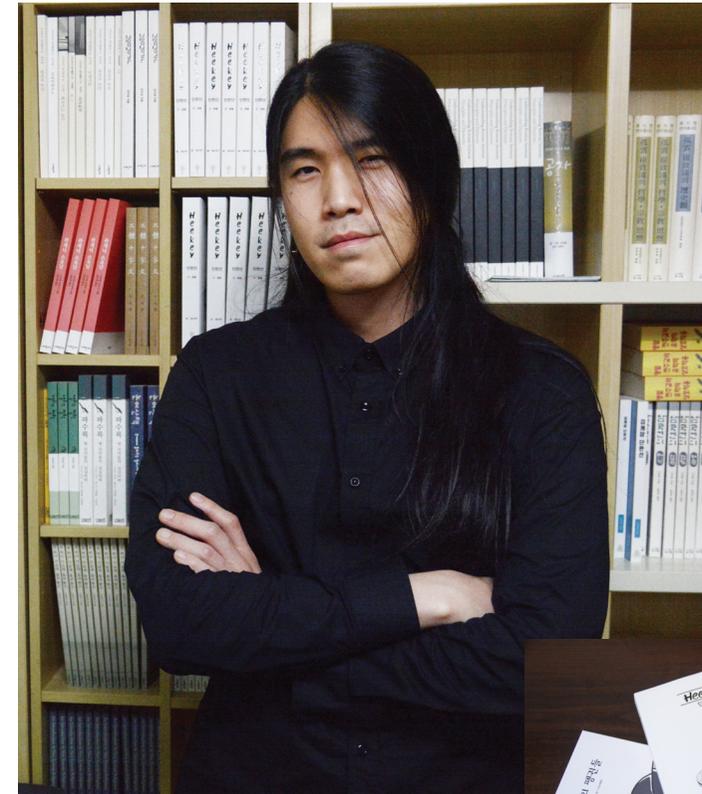
김미체
출판사 ‘나무아미안해’ 대표,
희키 웹툰작가

못한 기괴함과 반전을 보여주는 ‘김케장’,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작가 ‘희키’ 등의 작가를 섭외했다.

예상보다 독자들의 반응은 컸다. ‘김케장’ 작품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한 결과 200만원 목표금액 중 1600만원을 달성했다. 800% 가까운 초과성과다. 나무에게 미안할 정도로 질이 낮은 이 작품은 2쇄까지 찍었으며, 500부 정도가 추가로 팔렸다. ‘닥터펜킨’의 성인동화 작품은 1000만원어치를 팔았다.

나무아미안해에서 출판한 작품들은 표현 방법에서 저급함이 녹아있지만, 내용 자체의 질이 무조건적으로 낮지는 않다. 사회현상을 비판하거나 예상치 못한 반전이 나오기도 한다.

희키 웹툰작가와 희키툰 중 일부



김미체 나무아미안해 대표와 나무아미안해 출판물



희키 작가는 “대충 그린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나름의 의도가 담겨있고 플롯을 짰 뒤 작품을 그린다”면서 “캐릭터의 눈이 짝눈인 것은 미술입시 때 캐릭터 작성수업에서 좌우대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점수를 낮게 받은 것에 대한 일종의 반항심에 적용했으며, 대충 그린 듯한 캐릭터 디자인은 독자들이 쉽게 따라 그릴 수 있도록 의도해서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질이 낮은 자신의 작품이 읽히는 이유가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희키는 “소재는 그냥 일상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반영해 선정한다. 처음엔 왜 내 작품을 보는지 나조차도 궁금했는데, 최대한 솔직하게 표현했을 경우 좋아해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출판을 계기로 희키는 올해 4월부터 웹툰 서비스 플

랫폼 ‘탑툰’에 연재하게 됐다. 오히려 연재 이후 독자들의 원성이 높아졌다. 강한 표현과 욕설로 나타낼 수 있는 작품의 효과가 줄었기 때문이다. 작품을 통한 대리만족의 만족도가 떨어진 셈이다.

희키는 “연재할 당시 강한 표현을 사용해도 된다고 했지만 너무 심한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 등을 통해 수위를 조절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정식 연재 이후 날카로움이 부족한 느낌이라며 오히려 비난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젊은 작가 섭외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무아미안해에서 출판되는 책은 사실상 종이 값과 인쇄비 등을 제하면 남는 게 많지 않은 사업”이라며 “무가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팬이 있는 작가도 있고, 즐겁게 불만을 작품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젊은 작가들을 섭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①